

남부교회, 칭립 50주년 감사예배 및 장로장립 등 임직식

“주님의 몸 된 교회 세워가는 일에 정진할 것” 다짐



서울남지방회 남부교회(박요섭 목사)가 4월 7일(주일) 오후 3시 칭립 50주년 감사예배 및 명예직분 추대·장로장립·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요섭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에서는 지방회부회장 문제영 목사의 기도와 지방회서기 박기홍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부총회장 김민수 목사가 ‘충성되어 여겨’(딛전 1:12~13)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임직식은 명예직분 추대식·장로

장립식·안수집사·권사 취임식

으로 진행됐으며, 예식을 위해 최한규 서순석 오성택 양준기 김재철 박광일 윤여종 류형창 구자신 문제영 박요섭 목사와 윤두훈 이경근 김종현 차천용 장로가 순서를 맡아 수고했다. 이어 3부 권면과 축하 시간에는 서순석 목사(전 지방회장)의 권면과 박광일 목사(성결신학원 이사장)의 축사, 김상식 목사(성결대학

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서울남지방회 장로회전국연합회 서울남지방장로회, 남부교회 각 기관의 임직폐전달과 꽃다발 증정 후 임직자 대표 정희석 장로의 답사, 차천용 장로의 인사의 말씀에 이어 최한규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임직식은 하나님과 성도와 내빈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정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식이 되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장로장립: 정희석 김동영 김진설 박봉준 △안수집사 안수: 이준석 김지형 △권사취임: 안정희 최윤희 신제니 박미용 김경미 김순진 장희순 △명예장로 추대: 박구백 △명예권사 추대: 김영순 권순오 신길순 김연화 △명예집사 추대: 현석.

서울남지방회주재기자 박기홍 목사

새생명교회, 이전감사예배

“새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할 것”



경기지방회 새생명교회(강병구 목사)가 지난 3월 17일(토) 오전 11시에 서부감찰 주관으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부 감찰장 권오규 목사의 사회와 서성권 목사의 기도와 오산성결교회 진상민 목사의 ‘백향목으로 지은 교회’(시 92:12~13)라는 제하의 설교가 있었고, 감찰회 회계 정한국 목사의 봉헌기도와 종회 부총회장 김민수 목사(고현교회)의 축도로 이전 감

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강병구 목사는 경기지방회 의왕감찰회 소속이었으나 이번 지역 재개발로 서부감찰회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곳이 하나님의 목회 장소로 주신 줄 알고 날은 목회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 새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지방회주재기자 이종학 목사

세광교회, 항존직 임직 감사예배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안수 등 새 일꾼 세워



광주지방회 세광교회 박영진 목사에서 지난 3월 24일(주일) 오후 3시에 명예장로 추대, 장로장립, 권사 취임, 안수집사 등 총 9명의 항존직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순서로 담임 박영진 목사의 사회와 부회장 김창호 장로의 기도, 서기 이곤민의 목사의 성경봉독, 세광교회 카리스찬양단의 특송 후 총회장 조임구 목사가 ‘치원 높은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지는 2부 임직식에는 이용석 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와 홍성남, 임춘택, 고준상 안수집사의 장로장립과 최은옥,

차희정, 김정애 집사의 권사안수와 강희석, 김준월 집사의 인수식이 인수위원회의 인수로 진행되었다. 인수위원회로는 박영진 조임구 박정택 박종영 이정관 포석봉 이종만 오중교 박행준 고평석 이승훈 목사가 수고하였다.

3부 임직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전지방회장 박종영 목사, 전 지방회장 포석봉 목사의 권면과 전 지방회장 이종만 목사의 축사가 있은 후 지방회장 박정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쳤다.

광주지방회주재기자 이곤민 목사

봉성교회, 교회 2층 사택에서 화재 발생

“신속한 예배당 복구를 위해 전국 교회에 기도 부탁”



강서지방회 봉성교회(한주애 목사)가 지난 3월 29일(금) 새벽 5시경 화재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화재는 원로목사 사택이 있는 교회 2층에서 발생해 내부가 불에 탔으며, 1층 예배당은 화재 연기로 인한 그을음과 화재진압 시 소방수가 1층 예배당으로 흘러 들어가 침수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새벽기도에 나온 몇몇 성도가 유독가스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담임 한주애 목사는 “하나님의 새로

운 뜻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성도들과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있다”며 “낙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지방회는 신속한 예배당 복구를 위해 모두가 합심 기도로 고난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 봉성교회는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근 교회와 연합으로 김포푸드뱅크 등의 물질적인 지원과 차량봉사를 해왔다.

강서지방회주재기자 이명모 목사

주님앞에제일교회, 임직감사예배 명예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 장로장립, 안수집사·권사 임직



서울중부지방회 주님앞에제일교회(노윤식 목사)가 지난 3월 31일(주일) 오후 2시에 명예장로·명예권사 추대식,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지방회장 이광현 목사의 사회, 이창원 목사의 기도, 황성연 장로의 성경봉독, 니윤찬 장로의

식이 진행됐다. 예식을 위해 박의래 유선호 공요섭 이두성 이광현 오정훈 목사가 각각 기도와 임직자 소개 및 인수를 맡아 수고했다. 송덕준 원로목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예식을 은혜롭게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명예장로 추대: 오동원 한은진 장대원 김병남 △명예권사 추대: 김서영 노정경 송선은 안도준 이순원 정해란 최현자 △장로장립: 황명우 △안수집사 안수: 김도성 김상열 △권사취임: 김자영 송승옥 이화진.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황규정 목사

세광교회,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김영주 목사 담임 위임



벚꽃이 활짝 개화하기 시작한 지난 4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충서지방회 세광교회 담임 김영주 목사의 위임 감사예배가 1년 만에 있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손기선 목사(마미당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예배를 위해 김동준 장로(삽교교회)의 기도, 정기영 목사(불암산교회)의 성경봉독, 세광교회 세 자매로 구성된 도르가의 아름다운 축하연주와 지방회장 이명선 목사(동신교회)가 빌립보서 4장 1절~7절을 통해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세광교회와 새로 부임하는 김영주 목사가 이 지역에 자랑할 만한 교회와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부탁했고, 봉헌을

위해 이우재 목사(금마제일교회)가 봉헌기도 하므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축하 순서는 지방회 부회장 윤병선 목사(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신 목사(신암교회)의 위임자 소개, 지방회장 이명선 목사(동신교회)의 서약과 공포가 있었으며, 조병창 원로목사(안양교회), 박종복 목사(대천소망교회), 심상훈 목사(고온교회)의 축사가 이어졌고, 조병창 원로목사(안양교회)의 축도로 담임목사 위임식을 마쳤다.

충서지방회주재기자 손기선 목사

기초 1번 목사부총회장 후보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

예성 선교 118차 및 제103회기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기분 좋은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I. 반드시 화합을 이뤄내겠습니다.

- 예성의 모든 계파와 기관들이 건강한 총회를 위해 화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배님들이 세우 교단의 정신과 가치,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 가겠습니다.
- 반기만하는 총회가 아니라 개 교회에 주는 총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정보, 프로그램, 행정서비스 등

II. 반드시 성결하고 진취적인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 먼저 총회 사무국의 행정 서비스와 재정의 투명성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총회 회사 각 재단과 기관들 – 유지재단, 은급재단, 성결대학교, 총회성결교신학교 등 – 이 예성의 모든 목회자들이 예측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로드맵과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유퇴목사님들과 평생 해외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노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사회와 교회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에 밝고 활동력 있는 신시니어들을 활용한 목회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과 고령화되는 교회들의 부흥과 활력을 되찾고, 시니어들이 행복한 삶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돋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III. 반드시 교단의 부흥(위상)을 이뤄내겠습니다.

- 인재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교단 자체들의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성의 진취적인 변화와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성결교회의 특징인 부흥운동과 섬도대회, 그리고 기독교 매체(ON, OFF-Line) – CTS TV, CBS, 극동방송, 기독교신문 등 – 를 활용한 교단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총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총회회관건립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클린선거를 실천하겠습니다.